

여성 문해학습자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참여 체험의 의미

김예진(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이지현(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여성 문해학습자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한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작품을 전시한 S 어머니학교의 여성 문해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범주 안에서 40개의 전환된 의미 단위, 14개의 주제, 7개의 중심 의미가 도출되었다. 첫째,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의미에서는 자기 개방과 그리기의 부담이 있지만 격려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미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게 됨이 나타났다. 둘째, 전시 체험의 의미에서는 낯선 전시장 안에 걸린 자신의 작품이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의 통합적 의미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가 여성 문해학습자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중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성 문해학습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여성 문해학습자,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전시 체험, 현상학적 연구,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

I. 서론

* 주저자: 김예진(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yejin0365@ewhain.net)

† 공동저자: 이지현(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gtgt@ewha.ac.kr)

‡ 교신저자: 강애란(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akang@ewha.ac.k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 배우야 한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 그런데 그림으로는 내 이야기를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학령기 의무 교육의 기회를 놓쳐 글을 모르고 지내다 고령의 나이에 문해교육을 받기 시작하며 배움의 한(恨)을 해소하는 문해학습자들은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문해교육은 요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최영이, 임춘희, 2015). 한글이라는 고유한 언어를 가진 한국은 높은 교육열 속에서 정보화와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의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전체 성인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의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에서 나타난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중학 학력 미만의 저학력 인구인 408만여명(9.8%) 역시 문해교육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렇듯 문해교육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20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중 여성의 비율은 6.94%로 남성(2.89%)보다 높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가부장적 유교 문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윤복남, 1999). 여성의 비문해 상황이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문해 여성들은 가정생활에서도 글을 모른다는 위기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들의 삶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다(황선정, 손지아, 2018).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었던 비문해 여성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부터도 소외되거나 일상생활 안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주위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집에서 되도록 먼 학교로 통학하면서 문해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은행에서 ATM 기를 사용하기 어렵고 긴급 상황 문자를 바로 읽고 대처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가족이 아픈 순간 병원에서 보호자로서 읽고 서명해야 하는 문서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비문해 여성들이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겪는 좌절감은 일상의 여러 어려움 안에서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되기 쉬운 심리적 환경이 된다. 점점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피하게 되면서 비문해 여성들은 자기표현이 줄고 사회 안에서 위축되어 가며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이지혜, 2011). 이처럼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비문해자로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불편함과 사회, 관계적 갈등 안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

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보고하고 있다(김미경, 이에스터, 2019; 박상현, 한상훈, 2016; 박성숙, 손영민, 2020; 한수정, 한경훈, 2018; 황선정, 손지아, 2018).

비문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문해학습자가 된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심리적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예술치료적 융합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중 미술치료는 언어적 소통의 제한을 넘어선 미술언어(Wadeson, 2008)를 도구로 억압된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맞고 틀림에 대한 구분, 즉 정답에 대한 부담이 없는 창의적 과정을 포함한 미술치료는 여성 문해학습자들의 긴장을 완화시켜 치료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과정을 눈 앞에 남아있는 작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비문해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집단 미술치료는 집단 구성원의 경험에서 다양한 표현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언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느낌, 갈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내적 욕구를 자극하여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최선남, 김갑숙, 전종국, 2007).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동료 학습자들과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하는 집단 미술치료는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김성자, 강은숙, 최운실, 2016). 나아가 자신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는 미술을 통한 공적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여성 문해학습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회 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발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게 된다. 전시는 작품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람객은 그 구조를 탐색하는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 전시를 즐긴다. 전시 안에는 작가와 작품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또 다른 기억의 공간으로 역할하면서 작가와 관람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유기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나선엽, 안금희, 2017). 전시의 과정 안에서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발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작품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창조적 몰입, 이를 통한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강석태, 2018).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걸린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작품과 소통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 체험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며, 사회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소통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위축되어 있던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 문해학습자들에게는 자유로운 미술 활동과 전시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과 가치를 새롭게 발

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미술 심리 치유적 접근이 유용해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문해교육 외에도 여성 문해학습자의 사회적 참여와 문해학습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성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여성 문해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 동기와 자아인식, 학습과정과 만족도 등 문해학습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성자, 강은숙, 최운실, 2016; 박상현, 한상훈, 2016; 이지혜, 2011; 장세정, 박환보, 2020; 최영이, 임춘희, 2015; 허영숙, 기영화, 2008). 그리고 여성 문해학습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의 효과성과 심리적 영향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권귀연, 2017; 김종천, 2017; 문춘단, 2013; 박성숙, 손영민, 2020; 한수정, 한경훈, 2018; 한혜정, 2014; 황선정, 손지아, 2018). 이렇게 문해교육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문해교육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문해교육 외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 김미경과 이에스더(2019)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노년기 비문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표현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예지(2021)는 집단음악치료가 성인 문해학습자의 우울, 사회적 고립,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양복이와 김진숙(2021)은 문해교육에 마음열기, 긍정성 도입, 학습역량 강화 및 조력, 자신감 및 지속성 강화 등의 코칭 기법을 활용하였을 때 자기효능감과 학습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는 미흡하나 이와 유사한 예술치료 및 코칭 기법을 활용한 사전 연구를 통해 여성 문해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 및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성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성 문해학습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미술치유적 접근을 활용하는 연구로 미술치유 프로그램과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여성 문해학습자의 심리지원 및 사회인식의 변화를 위한 미술치유적 접근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한 여성 문해학습자가 겪는 체험의 현상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자기 인식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이

지닌 의미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문해학습자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현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여성 문해학습자가 작품을 전시한 체험의 현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여성 문해학습자가 체험한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의 통합적 의미는 무엇인가?

3. 용어 정의

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치료(Curing)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의학적인 수단을 통해 질병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치유(Healing)는 그 외에 심리적,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상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조주영, 이효원, 2011). 미술치료 분야에서 미술치료와 미술치유의 구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치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미술과 예술의 치료 영역에 있어서 치유와 치료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분과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개인의 자발적 성장을 증시하는 치유의 경우 교육과의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 타당성 연구(2013)에서는 예술치유가 주로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자존감 회복, 심리적 위안 등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예술교육은 지식이나 스킬 습득을 통한 문화적 소양 증대를 목적으로 함에 그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체험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은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치료적 접근보다 미술이 가진 치유적 특성을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문제를 개선하여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전인적인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정여주(2016)의 예술치유 개념으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나. 전시 체험

전시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보여줌으로써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 철학 등을 전달하고 관람객은 이를 수용 또는 비판하는 자세로 작품을 즐기는 일련의 과정이자 그 현장을 의미한다. 즉, 전시는 작가와 관람객이 작품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전시 체험’은 전시장에서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작품 감상 체험’을 떠

올리게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관람객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작가로서 작품을 공개하는 주체적 역할의 전시 체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시 체험’은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후 그 결과물(작품)을 대중적인 전시장에 공개하고 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II. 연구 방법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참여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고, 그들의 삶에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한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experience), 그 중에서도 체험(lived experience)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 Creswell(2015)은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Giorgi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필수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하는데, 전체에 대한 느낌(sense)을 파악하는 1단계, 연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학적 관점으로 ‘의미 단위’를 나누는 2단계, 연구 현상을 강조하면서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심리학적 언어로 기술하는 3단계와 전환된 의미 단위를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것이 마지막 4단계이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여성 문해학습자가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를 체험한 현상과 의미들을 진술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여러 번 읽으며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있는 진술들을 전환된 의미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까지 참여자가 진술한 본래 언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에 대한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심리학적 혹은 일반적 언어로 변환시켜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환된 의미 단위를 일관성 있는 구조 진술로 통합하며 핵심 의미를 도출하고 범주화시켜 정리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Creswell(2015)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연구되어야 할 현상을 반드시 체험한 자들이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 대해 주관적인 입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S어머니학교에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11회기로 실시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과정에 참여한 여성 문해학습자 16명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료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 교육기관인 S어머니학교 내에서 진행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E 아트 파빌리온에서 진행된 전시를 체험한 50세 이상의 여성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S어머니학교 교장 선생님이 보호자로 참석하여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연구내용 설명 및 동의 과정에서 개인의 노출 및 면담내용 녹음에 대한 부담으로 10명이 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자발적 의사로 연구에 동의한 자는 6명이었다.

셋째, 집단미술치료 질적사례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최아린, 한경아, 2019; 전은진, 박윤미, 2020)를 참고하였을 때, 본 연구의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위한 적절한 연구참여자 수는 6명이었다.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 및 동의를 표현한 연구참여자 6명을 최종 선정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연구참여자 들은 S어머니학교에서 문해학습자로 재학 중인 50세 이상의 여성 학습자 6명으로 연구참여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참여자	연령	최종학력	문해학습 참여기간	S 어머니학교 반
A	65	무학	2년	배움반
B	59	초졸	10년	지혜반
C	62	초졸	4년	지혜반
D	82	무학	3년	배움반
E	60	무학	7년	배움반
F	58	초졸	6년	지혜반

3.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내용

본 연구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는 <우리가 글이다, 우리가 그린다>라는 명칭으로 S어머니학교 재학생인 여성 문해학습자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11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술 활동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자 참여자들이 다루기 쉬운 친숙한 매체들을 사용하였으며 조형적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즉,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비문해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술치유 기법이 도입된 미술 활동을 하며 시각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전시를 통해 건강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회기부터 6회기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7회기에서 10회기는 전시, 11회기는 전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세부 내용

명칭	우리가 글이다, 우리가 그린다			
회기	장소	주제	주요내용	재료
1	S 어머니학교	그림같은 글자, 글자같은 그림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명칭을 미술재료로 구성	캔버스, 다양한 미술매체 등
2		몸으로 그리는 글 : 내가 걸어온 길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플루이드 아트로 표현	하드보드, 아크릴 물감 등
3		손으로 뭉쳐낸 마음, 손으로 나누는 마음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탐색하며 흙으로 표현하고 소성	청자토, 헤라 등-가마에서 소성 작업
4		외치고 싶은 마음 :나를 이미지화하기	자신에 대한 은유적, 상징적 이미지를 찾아 바느질로 표현	편치니들, 다양한 색상의 털실 등
5		떠오르는 얼굴 :관계 탐색 및 표현	소중한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감정 탐색	한지, 목탄, 식빵, 콘테 등
6		소리로 표현하는 마음	내면의 이야기를 오르골 악보에 점자로 옮겨 음악으로 전환	오르골 악보, 수동 오르골, 싸인펜 등
7	E 아트 파빌리 온 전시장	작품을 소개해요	지인, 가족과 함께 한 전시 오프닝	오프닝 행사 등
8		작품을 함께해요	관람객과 함께 오르골 작업, 작품 나누기	오르골 재료, 전시장 의자 등
9		그림 속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작가와의 대화	전시 방명록 등
10		그림으로 대화해요	외국인, 대학생과 함께한 작가와의 대화	인터뷰 기록 등
11	S 어머니학교	삶의 의미 한 조각, 경험 한 조각	삶의 조각들을 모자이크 컬트로 표현	모시천, 바늘, 실, 풀 등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는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S어머니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당 주 1회, 총 2회에 걸쳐 약 3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의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시행하였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 전의 생각, 참여 과정에서의 느낌, 참여 후의 변화 등을 순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전체를 녹음하였고, 녹음된 파일은 녹취록으로 전사하고 각 연구참여자의 문장 단위에 기초하여 내용을 색인화하면서 구조화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경험의 의미 단위를 다시 원자료와 비교, 확인하며 신뢰성을 높였다.

이후 연구 결과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를 함께 진행한 미술치료사와 공유하며 교차 체크하였고 1차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과정은 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에 대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연구자 1인, 융합 미술치료학 전공 교수 1인과 함께 여러 차례 검토하여 분석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성 문해학습자로 인터뷰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과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대상자이다. 따라서 문어체로 구성되는 연구 참여 동의서 등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문서를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심하게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심사*를 통과하였고 그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다음의 <표 2>는 여성 문해학습자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참여자 6명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녹취록과 연구자 면담 기록지였으며 녹취록을 중심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분석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내용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시

* IRB 번호 : ewha-202106-0016-01

작으로 연구 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미 단위를 구별하여 전환된 의미 단위로 정리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쳤다. 이어 중첩되는 의미 단위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분석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심리학적 언어와 연구자의 언어로 전환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류된 진술들을 일관성 있는 구조 진술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중심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의미, 전시 체험의 의미,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의 통합적 의미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의미 안에서는 3개의 중심 의미와 6개의 주제, 전시 체험의 의미 안에서는 2개의 중심 의미와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의 통합적 의미에서는 2개의 중심 의미와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3> 여성 문해학습자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

전환된 의미 단위	주제	중심 의미	구분
아픈 과거를 이야기해야 했던 상담 경험이 떠오름	자기 개방에 대한 두려움	미술치료 에 대한 부담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의미
지난 이야기에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며 주눅이 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움			
글도 쓰라고 하면 어떡하지?	글쓰기와 그리기 수행에 대한 긴장		
나이 먹어 하는 미술이 부담되어 눈치를 보게 됨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걱정스러움			
미술치료 선생님의 자상한 설명에 의지하여 힘을 냄	치료사와 동료의 지지	격려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즐거움	
내 사정, 그 심정을 잘 아는 동료가 있어 창피하지 않음			
동료들과 함께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즐거움			
매 시간마다 새로운 미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로움	다양한 매체 사용의 즐거움	격려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즐거움	
이렇게 만지고 만드는 것이 신기함			
좋아하는 재료로 여러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함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까 기대하게 됨	위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위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	
감정을 표현하며 시원함을 느낌			
못해도 괜찮아!			

눈 앞에 남아있는 작품과 미술 활동이 만족스러움	찾음	로 즐 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즐기게 됨		
처음과 달리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편안해짐			
새로운 경험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됨	어렵고 낯설지만 용기를 내어 전시 참석함	어려움과 낯설음 속에서 낸 용기로 뿌듯함	전시 체험 의 의미
동료들에게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음			
전시에 대한 기대가 낮음	생각과 달리 전시가 편안하게 느껴짐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	
전시장에 들어서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미술치료 선생님들의 환대로 용기를 냄			
벽에 걸린 내 작품을 발견한 순간 행복해짐	전시를 통해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함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변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의 통합적 의미
내 작품 옆에 나의 이름이 없어 편안함을 느낌			
못 배운 우리네 작품도 전시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움	나의 삶이 타인에게 지지받고 있음을 느낌		
작가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자랑스러움 이런 재주도 있어?			
가족들이 전시를 통해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움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뀜		
전시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쁨을 느낌			
전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자랑함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으로 인한 용기가 생김	자기 성장의	
전시 후에도 집에 걸린 내 그림이 나와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어 기쁨			
다른 누구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표현하며 응원과 격려를 받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낌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로하게 됨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달라짐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소중한 경험	용기가 생김	경험	
이 과정을 훌륭하게 수행한 나 자신이 당당하게 여겨짐	자신감 회복을 통한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김			
주변 사람들에게 비문해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함을 자각함			

1.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의미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자기 개방과 글쓰기 및 그리기 등 수행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으로 미술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치료사 및 동료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참여자들은 심리적 위축과 좌절을 벗어나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체험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가. 미술치료에 대한 부담

1) 자기 개방에 대한 두려움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전쟁과 가난 등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으며 학령기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성인 후기에 이르러 문해 교육을 받게 된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심리적 위축과 좌절을 경험해왔다. 배우지 못한 한(恨)을 지닌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며 주눅이 든다고 하였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아픈 과거를 집단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했던 상담 경험을 떠올리며 자기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 못 배웠다는 그 자체가 참 그래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배웠는데... (C-1-43)

새로운 데서 내 얘기를 터놓지를 못하는 거지. 내 자존심에...알아도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B-1-75)

얘기를 해야 풀어지는 거니까, 자꾸 이 아픈 과거를 얘기하는데...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거야. 선생님하고 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A-1-102)

내 속에 있는 말이 나와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어떡하나...그것 때문에 저녁에 잠이 벌써 깨더라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해...서글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A-1-36, 37)

2) 글쓰기와 그리기 수행에 대한 긴장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안에서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 활동이 글쓰기로 이어져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또한 학령기 시기에 미술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미술 활동에 대한 긴장감이 높았다.

선생님이 종이를 주면 마음이 애간장이 타는데 표현을 할 지, 뭐 쓸 지를 모르니까...막 뱉어놓고 싶은 말이 많은데 쓸 줄을 모르니까. (A-1-40)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하면서 걱정되는 건,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쓰라고 하면 어떡하지. (F-1-40)

안 해봐서 생소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처음에 물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C-1-31)

색칠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릴 줄은 몰라요...선생님이 책을 주면 색깔을 맞춰서 가져오고 그냥 그랬지. 색칠하고 그것 뿐이 몰라요. (D-1-27)

나. 격려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즐거움

1) 치료사와 동료의 지지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술치료사의 친절한 태도와 자상한 설명에 긴장감을 떨치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용기를 주는 말과 세심하게 한 단계씩 알려주는 치료사의 자세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실행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또한 같은 아픔을 지닌 동료들과 함께 집단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창피함 대신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였고 동료들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멋진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용기를 얻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였다. 이처럼 동료집단은 참여자의 심리적 지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보기 싫어도 괜찮고 못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해보자고. 그래 그 말에 내가 그냥 용기를 가지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D-1-79)

선생님들이 뭘 하나 갖고 와도 이렇게 짝 펼쳐 놓고...뒤편 이거는 하다가...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조금씩 시범도 보여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그때 재료 가지고 다 글씨로 맹글어 버리고, 아주 신나게 맹글어 봤지. 한 시간을 계속... (B-1-60)

나이 상관없이 같이 학교 다니는 동료잖아요. 그냥 이것 저것 같이 해보면 좋아. 그게 다 추억인데, 그렇죠? 언제 해보겠어. 우리끼리. (E-1-83)

우리는 어디 가서 진짜 뭘 모르네, 못 배워서 힘들었네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이제 공통이니까. 다 내 사정, 그 심정을 진짜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 속에 쌓였던 것도 여기 와서 함께 하면서 해소시키는 거예요. (F-1-32)

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도 하는구나. 나와 다르게 한 거를 보고 이렇게 해도 참 좋구나. 이런 생각... (F-1-58)

2) 다양한 매체 사용의 즐거움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안에서 다뤄본 미술 매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있었다. 종이와 연필, 캔버스와 물감 등 미술 활동의 대표적인 재료 외에도 목탄과 식빵, 청자토, 수동 오르골 등을 다루는 창작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털실과 바늘을 활용한 펀치 니들 작업, 다양한 천 조각을 활용한 켈트 작품 등 어머님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시간 외에 추가로 작품 제작 시간을 가질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매체의 제공은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점자로 오르골을 하는 거. 진짜 그거 너무 신기했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그림이 어떻게 음악으로 나올 수 있어요? (E-1-67)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림 할 적에 한 가지만 놓고 하는 줄 알았으니까. 하나를 계속하는 줄 알았더니 주마다 바뀌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림만 그리는 것도 아니고...

(B-1-22)

하는 동안에 그 날짜마다 기대되고 오늘은 또 뭘 가르쳐주실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 빠지기 싫었어요. 저희는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F-1-41)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지. (C-1-33)

다. 위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즐김

1) 위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찾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맞고 틀림이 없는, 즉 정답이 없는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하지만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못해도 괜찮아!’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주문은 그들에게 많은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만족스럽게 완성된 작품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런 거지. 그거 못한다고 벌써 지진 않아. 딸이 못해도 괜찮아,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하고 한 거야. (D-1-65, 66)

어떻게든 때려 갖고 만드니까 뭐가 나오니까...그릇도 나오고 컵도 나오고...그게 하나의 작품이 돼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B-1-110)

미술 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미술 하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죠. (D-1-52)

미술은 눈 앞에 남아있었어, 맞아! 남아있어. (F-1-65)

2)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즐기게 됨

여성 문해학습자 대부분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문해 학습을 넘어 새롭게 도전한 미술 체험을 다른 분야로도 확장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되도록 피하고 싶어 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해나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도전에 대한 성공 경험을 내재화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안에서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점차 편안해짐을 인식하였고 참여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문해학습자들이 수동적인 학습자를 넘어 능동적인 학습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가슴이 엄청 두근거렸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A-1-50)

다 좋았어요. 누구는 울었다고 하던데...얼마나 좋아요. 미술 해주신 거 다 고맙지. (E-1-62)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보고 내가 힘이 생겼지. 나도 이제 할 줄 아는 거 있다. 별거 아닌데! (D-1-45)

안 한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저는 100%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있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해. 시간을 빼서라도 꼭 해봐라. 이런 추천을 하고 싶어요...너무 너무 좋았기 때문에... (F-1-62)

2. 전시 체험의 의미

전시라는 낯선 경험 앞에서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미술치료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용기를 내 전시에 참여하였다. 전시를 감상하는 가족 및 일반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라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시가 끝난 후에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가. 어려움과 낯설음 속에서 낸 용기로 뿌듯함

1) 어렵고 낯설지만 용기를 내어 전시에 참석함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미술작품 전시에 대해 처음에는 무척 낯설어하고 어색함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 전시장에 미술작품을 전시한 경험이 없어 그 장면을 떠올리기 어려워했고 미술작품 전시는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라 인식했다. 몇몇 참여자들은 문해교육을 받으며 자신들의 글을 전시한 적은 있었으나 여러 문해 학교에서 연합으로 개최하는 전시이거나 책으로 펴낸 경험만을 갖고 있었기에 처음 시도한 미술 전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 하지

만 호기심을 가지고 전시장을 찾았고 미술치료사와 S어머니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작품이 걸려있는 전시장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때 전시회 가서 선생님들이 다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D-1-96)

가니까, 선생님들이 반가워하고 그러니까...막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들어가서 내 것도 보고, 아는 사람 그림도 찾아보고... (D-1-100)

진짜 나... 갈 때 마음하고 가서 전시를 본 마음하고 틀렸어요. 갈 때 너무 덥고 힘들었잖아.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가서 딱 본 순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것만 전시할 줄 몰랐어. 다른 학교들 다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만 딱 전시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 (E-1-2)

2) 생각과 달리 전시가 편안하게 느껴짐

전시를 방문한 참여자들은 전시장 벽에 걸린 자신의 작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라는 행사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자기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사실과 그 현장을 직접 보며 뿌듯함과 감격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이와 함께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문해 학습자들은 전시가 또 다른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공간이었던 전시장 안에서 그들은 편안함을 느꼈고 안도하며 전시를 즐길 수 있었다.

나 그런 데 전시하는 거는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네도, 못 배운 우리네도 그렇게 좋게 해놓으니까 그게 진짜 전시장이 보이던데요. (A-1-108)

미술 전시관 같은데 가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나 저런 데 걸리는 거지 했지.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끼리 작품 전시회에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뿌듯했어. (F-1-75)

시시하게 안 보였어. 진짜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진짜 나이 들었지만 우리 참 잘한다.... (E-1-82)

그 그림 보러 가는 데가....맞다, 전시회에 가서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생전 처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여놓으셨길래 참 너무 황송하고...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거 처음 그려 본 건데 선생님이 딱 걸어놓으니까 더 우리러 보게 돼. 고마워서. 그

거 안 붙여놓으면 못 보잖아요. (D-1-37, 38)

그런데 선생님, 여기 저희 이름 없었던 거 다 생각해 주신 거죠? 이름이 모르게 들어간 것들도... (E-1-93)

나.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

1) 전시를 통해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함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작가와 대화’ 시간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족과 지인을 전시에 초청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참여자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그들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에 대해 인정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열등감으로 위축되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타인의 지지와 존중을 확인하며 참여자들 스스로 대견함을 느꼈고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며 자존감이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미술 가서 나보고 작가님이라고 할 때 참 기뻐요. 배우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A-1-11)

내가 인터뷰도 했잖아. 일본 사람이 그러면서 나보고 작가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딸한테 자랑했더니 ‘ 좋겠네, 엄마. 배우니까 좋지?’ 이래서 ‘그럼 좋지, 지금은 그 전에 사는 거하고 옛날 삶이랑은 느낌이 틀려.’ 그랬어요. (A-1-110)

그거 진짜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진짜 그린 거 보니까 손색이 없어. 어디 그냥 작품이라고 갖다 걸어놔도. 왜 돈 받고 팔았을 수도 있겠어. (F-1-54)

2) 나의 자랑거리가 된 그림

전시장에서 관람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장에 마련된 방명록에 적힌 관람객들의 응원과 지지의 글을 접하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전시장 공간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작품을 눈에 담는 것을 넘어 사진으로 찍어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했고 전시장을 방문하지 못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전시가 끝난 후 작품들을 집으로 가져가 주거 공간에 걸어놓음으로써 작품과 전시 경험이 참여자 자신과 가족의 자랑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했다고 딸들은 맨날 칭찬하죠. 대단하다고 지금도. (A-1-103)

그냥 내가 그린 거는 못 그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근데 그 그림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내 나이에 그걸 그렸다고 붙여놓으셨는데, 얼마나 즐거워?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D-1-40)

전시회 사진 보여주고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래. 어쩔 너무 멋있다고. (C-1-11)

나는 놀 때도 그 생각을 해. 저 그림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F-1-67)

내가 집에 가져가서 잘 놓았는데 그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애가 버린 줄 알고 물어봤어요. 00야, 엄마 그림 어땠니? 그러니까 갖다 버렸대. 그래서 어따 버렸어? 엄마가 그린 건데...참...이 나이 먹고 처음 그렸는데 어디에 버렸어? 그랬더니 엄마! 거실 쪽에 가봐, 거기에 버렸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 거울을 떼고 그걸 거기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그러더니 엄마, 거기에 버렸는데 어때? 그래서 난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달아놔서 고맙다고 그랬지. (D-1-86)

3.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의 통합적 의미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지지받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이해와 지지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변화로 이어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전시라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도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문해를 공개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등 자기 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변화

1) 나의 삶이 타인에게 지지받고 있음을 느낌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밝히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편견 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음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나아가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삶의 힘든 여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러한 이해와 지지가 참여자들에

게 큰 위로가 되며 세상에 대한 긍정의 시선을 지니게 되었다.

정말 다들 잘했어. 우리 거 보러 일본 사람도 왔었다는 게 얼마나...이거를 보고 뭘 느꼈을까? 정말 감동이고, 다행이에요. (F-1-70)

엄마가 생전 이런 거 안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은 그게 신기한가 봐요. 왜 우리가 자식들 학교에 보내면 개네들이 뭐 만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즐거웠듯이 이제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하면 즐거운가 봐요. (D-1-62)

어머니가 이런 면이 있냐고 너무 잘 그렸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라고. (C-1-28)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30년 된 친구한테도 이런 말은 안했어요. 누군가하고 정말 이렇게 터놓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하면서는 무슨 말을 누가 들어도 서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자체만으로도 내 삶의 의미가 나네.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A-1-27)

2)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과 전시 경험을 되새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위로하게 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달라짐을 느꼈고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비문해자로 살아오면서 취약점을 숨기기 위해 과장되게 자신을 포장하며 불안이 높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어려움 속에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온 참여자들 본인에게 선물 같은 순간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축되어 살아온 자신을 질타하는 대신 새로운 시도를 열심히 이어나가는 삶에 긍정적인 평가를 더하게 되었다.

느낌이 틀려요. 그 전 때는 두려움 그런 속에서만 세월이 흘렀어...시간이 흐르고 어쩔 때는 속상하고 그러면 술도 먹고 그랬어요...그랬지만 그 삶이 지금 하고는 또 기분이 틀려. 지금은 내가 뭐라도 하니까...지금 느낌은 옛날하고 틀려. 지금은 내가 사람답게 좀 산다는 거. 사람답게 살아서 뭐도 볼 줄 알고 용기 내어 누구하고 얘기도 하고. (A-1-112, 113)

내 친구들이 집에 와요.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이거 니가 그렸니? 라고 해서 너도 그려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그거 시간이 있어서 그리는 거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 (D-1-89)

감사하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변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A-1-122)

내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스스로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D-1-104)

나. 자기 성장의 경험

1)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가 생김

참여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한 체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 소중한 경험으로 여겼으며 도전에 대한 즐거움으로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큰 변화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용기 내어 참여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회피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믿음을 지니게 되며 성장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 잘했더라고요. 나만 잘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지금 다른 사람들 칭찬해주고 있는데, 잘했지. 잘했거든. 내 것만 봐도 이유가 있어. (F-1-60)

새로운 걸 도전해 본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 해본 걸 도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와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그만 자신감...해보면 별거 아니야. (F-1-56)

못하는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못 만들어도 괜찮고 잘 만들어도 괜찮다고 막 용기를 주셨잖아.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전시회 가서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즐거웠어요. (D-1-108)

지금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런 데 나와서 이런 거 배운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걸...참. (A-1-25)

2) 자신감 회복을 통한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의 과정을 훌륭하게 수행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했으며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생겼다. 특히 같이 사는 가

족들에게조차 자신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싶었고 비문해자임을 밝히기 꺼려했던 한 참여자는 이 체험을 통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였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개방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는 여성 문해학습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고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성장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런 데도 와 보는 구나.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왔어요. (D-1-94)

저는 정말 지옥에서 땅,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이따만한 빛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 어둠 속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F-1-26)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너 용기를 내야 해. 나 자신에게 너 이대로 무너지면 너 평생 이 수모를 겪는다 해서 정말 용기를 팡팡 내고 왔어. 진짜 가족에게 공개하는 용기를 하나 더 내야 하는데... (F-1-2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 문해학습자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하며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탐색하고 체험의 현상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범주 안에서 40개의 전환된 의미 단위, 14개의 주제, 7개의 중심 의미가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체험은 여성 문해학습자들이 자기 개방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기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치료사와 동료의 지지 안에서 다양한 미술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미술을 통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다. 이는 미술의 5가지 치료 요인을 즐거움, 통찰, 정서, 사고 촉진, 표현 요인으로 밝힌 이모영과 김은영(201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미술치료는 방어와 통제의 감소,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과거에 억압된 감정 표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에게 언어 이외의 매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이수진, 2002)와 노인의 집단 미술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쏟게 하여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미술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도와줌으로써 자기 노출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김동연, 류정자, 2001)와 비슷하다.

둘째,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전시장에 용기를 내어 걸어놓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전시장을 방문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일반 관람객 등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전시에서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며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체험은 여성 문해학습자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였다. 이는 집단 미술치료에서 전시를 실시하는 것이 시설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 결과(유경미, 2004)와 일치한다. 또한 작가가 전시 과정을 통해 자기 성찰과 몰입,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며 전시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는 연구(강석태, 2018), 스토리텔링과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전시장의 의미를 발견하고 전시행위의 전 과정은 개인적 참여에서 사회적 참여로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임을 밝힌 연구 결과(나선엽, 안금희,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여성 문해학습자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대한 통합적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즉,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 문해학습자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회복 등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 이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 결과(윤현정, 유희남, 2015)를 뒷받침하며 교정공무원을 위한 소집단 미술치료가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 조절과 자기 수용,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부정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양지민, 정재원, 2021)와 유사하다. 나아가 여성 문해학습자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비문해로 인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개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한 여성 문해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개인적 차원, 전시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경험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 유능함을 느끼는 사회적 차원의 결실의 통합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더해 여성 문해학습자가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한 작품은 전시라는 과정을 거쳐 그들 자신을 투영시킬 수 있는 상징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대중들에게 열려있는 전시장 안에 걸려있는 작품과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관객들의 반응 속에서 작품은 여성 문해학습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나'로

가능하였다. 더욱이 전시가 철수된 후에도 작품을 개인의 공간으로 가져가 좋은 위치에 걸어 놓고 훼손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며 소중히 다루는 자세는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더욱 세심히 돌보고자 하는 마음의 간접 표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문해학습자의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참여 체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성장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전시는 여성 문해학습자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돕는 안전한 환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한 체험이 여성 문해학습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 미술치료와 전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참여한 여성 문해학습자의 체험 의미와 그 안에서 일어난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실제 이야기 속에서 전시가 지닌 치유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 역시 연구의 중요한 의의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여성 문해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전체 여성 문해학습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 문해학습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연구참여자 수를 늘려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이 연구는 단기간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통합된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미술치료에서는 전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며 집단 미술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 미술치료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접근, 진행 과정 및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적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문해교육을 받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노년기 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나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이주민 등 문해교육을 받는 다양한 수요계층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해교육 수요계층을 포함하는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확장된 미술치료 개념 안에서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여성 문해학습자의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술치유 및 전시 프로그램이 확대, 계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사회 정책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 공동

체의 일원인 여성 문해학습자의 지역사회 활동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가치를 확장함에 있어 미술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의 활용 가능성을 마련하며 타 분야 융합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석태(2018). 미술 전시에 참여한 창작자와 감상자의 상호작용 경험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4(4), 659-67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성인문해능력조사(MP 1-3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저학력 성인 현황)**.
- 권귀연(2017). 문해 교육이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 학위논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김동연, 류정자(2001).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8(1), 103-126.
- 김미경, 이에스더(2019).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노년기 비문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5(1), 285-305.
- 김성자, 강은숙, 최운실(2016). 비문해 노인의 '생애 첫 졸업장'에 대한 의미 탐색.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12), 295-314.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Method**. 아카데미프레스.
- 김종천(2017). 성인 학습자의 문해학습 참여가 생애경험과 인식전환에 미치는 의미. **평생교육 학연구**, 23(4), 137-161.
- 나선엽, 안금희(2017). 수집과 전시행위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참여적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51, 109-146.
- 문춘단(2013). 문해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광주여자대학교.
- 박상현, 한상훈(2016). 성인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여성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자아개념이 일상 생활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7(1), 107-127.
- 박성숙, 손영민(2020). 여성 문해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와 문해교육 프로그램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8(1), 57-83.
- 신경립,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대 출판부.
- 양복이, 김진숙(2021).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3), 261-268.
- 양지민, 정재원(2021). 소집단미술치료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상담학연구**, 6(3), 21-50.
- 유경미(2004). 집단미술치료에서 전시 효과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시설 노인을 중심으로. 석

- 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윤복남(1999). 외국의 문해교육 및 성인기초 교육의 실천. **한국교육학연구**, 5(1), 155-180.
- 윤현정, 유희남(2015).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고독감,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통합심신치유연구**, 2(2), 20-38.
- 이모영, 김은영(2015). 미술의 치료 요인에 대한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11(2), 1-19.
- 이수진(2002).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증환자들의 사회생활기술과 대인관계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지혜(2011). 문해교육에서 ‘문해됨’의 의미-문해학습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7(3), 1-24.
- 임성운(2016). 미술관 미술치료 : 융합과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미술치료연구**, 23(2), 429-445.
- 장세정, 박환보(2020). 노인여성학습자의 학력인정 중학문해교육과정 참여와 중단 경험. **교육연구논총**, 41(1), 27-55.
- 전은진, 박윤미(2020). 초등학교 신입생의 또래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콜라주 중심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261-1287.
- 정여주(2016). 예술치유 패러다임을 위한 지원정책의 역할과 전망: 미술치유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14, 5-31.
- 조주영, 이효원(2011). 물리적 환경과 치유요소를 고려한 치매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 평가도구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1), 101-110.
- 최선남, 김갑숙, 전종국(2007). **집단미술치료**. 학지사.
- 최아린, 한경아(2019).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 기반 집단미술치료 질적 사례 연구. **조형교육**, 72, 145-171.
- 최영이, 임춘희(2015). 비문해 농촌 여성 노인의 문해교육 경험과 삶의 변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65-19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수정, 한경훈(2018). 중고령층 여성문해학습자의 학습참여형태와 교육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성인계속교육연구**, 9(2), 71-99.
- 한예지(2021). 집단음악치료가 성인문해학습자의 우울, 사회적 고립,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한혜정(2014). 성인학습자의 문해교육참여를 통한 성장과 변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

교.

- 허영숙, 기영화(2008). 노인여성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4(1), 29-57.
- 황선정, 손지아(2018). 비문해 성인후기여성의 문해교육만족도와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1(2), 59-81.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조흥식 외 공역). 학지사. (원전은 2013에 출판)
- Giorgi, A(Ed.).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심경리 외 공역). 현문사. (원전은 1991에 출판)
- Wadson, H. (2008). 미술심리치료학[*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장연집 역).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7에 출판)

· 논문 접수 2023. 02. 02 / 수정본 접수 03. 10 / 게재 승인 03. 22

- 김예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 및 판화 전공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비문해 여성, 평생 교육, 전시와 미술치료, 미술관 미술치료, 사회행동 미술치료 등임.
- 이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소 전공으로 졸업,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치료 교육 전공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전공 겸임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미술치료사의 삶, 미술치료 직업 환경, 비문해 여성, 평생 교육,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 등임.
- 강애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일본 다마미술대학교에서 석사, 예술 박사 취득 후 작가로 활동하며 예술의 치유성에 대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미술치료학, 서양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융합미술치료, Art as Therapy, 미술치료의 공공성, 대학의 평생교육과 미술의 역할 등임.

Abstract

Meaning of Female Literacy Learners' Experience in Participation of Group Art Healing Program and Exhibition

Kim, Ye Jin(Ewha Woman's University)

Lee, Ji Hyun(Ewha Woman's University)

Kang, Ai Ran(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 in which female literacy learners participated in group art healing program and exhibi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female literacy learners at S Mother School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art healing program and exhibited their work. A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40 converted semantic units, 14 themes, and seven central meanings were derived within three categories. First,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the group art healing program showed that they felt the burden of self-opening and drawing, but actively enjoy art activities away from psychological atrophy while feeling the joy of attempting new challenges in the midst of encouragement and expectations. Second, in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the exhibition, it could be seen that their works hung in an unfamiliar exhibition hall became the pride of their lives and that the value of their self was newly recognized. Third, the integrated meaning of group art healing program and exhibition experience, they came to have a positive view of themselves and the world, and they were able to restore their confidence and discover new possibilities for themselv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confirms that group art healing program and exhibition could be meaningful interventions for the psychological support of female literacy learners, and suggested that they could be extended beyond the individual level of female literacy learners to a practical method of subjective interaction within the community.

* Key words: Female Literacy learner, Group Art healing program, Exhibition experience, Phenomenological research, Social role of Art therapy